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2025. 12.

I. 출장 개요

□ 출장 배경

- 1인 가구* 증가,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으로 점차 심화되는 고독사** 및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마련 필요

* 1인 가구 비중: ('19) 30.2% → ('20) 31.7% → ('21) 33.4% → ('22) 34.5% → ('23) 35.5% → ('24) 36.1%

** 고독사 사망자: ('20) 3,279명 → ('21) 3,378명 → ('22) 3,559명 → ('23) 3,661명 → ('24) 3,924명

- 새 정부 국정과제 91-3으로 “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”이 포함되어 정책 범위가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

□ 출장 목적

-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사회적 고립·고독대책 추진 현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사회적 고립·고독사 예방 정책 및 관리방안 모색

* (일본) 고독·고립 대책의 중점계획 발표('21.12월), 고독·고립대책추진법 제정('23.6월), 고독사·고립사 연간 통계 발표('25.4월) 등

□ 출장기간 및 출장국

- (출장기간) 2025.12.02.(화) ~12.05.(금)
- (출장국) 일본

□ 출장자

소 속	직위 및 직급	성 명
보건복지부 (복지행정지원관)	과장	우경미
	보건사무관	정진경
	행정사무관	배성진
	전산사무관	박진균
한국보건사회연구원	연구위원	김가희
	부연구위원	김지민
	전문연구원	오다은
노인연구정보센터	센터장	황재영

□ 출장 일정

월일 (요일)	출발	도착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	면담자
12.2(화)	청주 (RF0322/09:45)	도쿄 (RF0322/11:55)		• 국가 간 이동(한국 → 일본)	
	17:30~19:00		도쿄도 시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내 고독·고립 정책 방향 논의 정책 방향, 사업 유형,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한 고립 해소 방안 등 논의 	井口 健一郎 (이구찌켄이찌로) (사회보장심의회 위원)
12.3(수)	11:20~12:00	社会福祉法人 立川市社会福祉協議会 (다치카와시 사회복지 협의회)		• (사)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등 사전 논의	이은심 교수 (쇼와여자대학교)
	13:10~14:40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사)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고독·고립 예방 사업 파악 - 복지 사각지대 발굴 - 사회적 단절없는 상담 지원 -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	大平 武彦(오에이후미코) 외 협의회 관계자, 이은심 교수 (쇼와여자대학교)
	16:10~17:30	足立区 (아다치구청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쿄도 아다치구청 지역의 힘 추진부의 고독·고립 제도 전반(사업 중심) - 지역 유대감 조성사업 개요 -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인 사업 유형 - 최근 이슈와 향후 추진방향 등 	澤田 健二(사와다겐지), 橋本 太郎(하시모토타로) (아다치구 지역의 힘 추진부)
12.4(목)	10:30~12:00	厚生労働省 (후생노동성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후생노동성 사회원조국 지역복지과(社会・援護局 地域福祉課) 고독·고립 대응 정책 현황 - 관련 법률, 제도 도입 및 경과 - 고독·고립 관련 예산, 통계 고독·고립 중점계획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지원체계, 정보시스템 운영 최근 이슈와 향후 추진방향 등 	미나미타카노리 실장, 菅野 史佳(스가노후미카) (후생노동성 지역복지과)
	14:00~16:00	内閣府 (내각부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각부 고독고립대책추진실(孤独・孤立対策推進室) 고독·고립 제도 개선 사항 논의 - 정책 방향, 사업 유형,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한 고립 해소 방안 등 논의 	堀江 典宏(호리에 노리히로), 今橋 知宏(이마하시 토모히로) 외 고독고립대책추진실 담당자
12.5(금)	도쿄 (RF0322/12:55)	청주 (RF0322/15:25)	-	• 국가 간 이동(일본 → 한국)	

※ 현지 기관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국외 출장 계획안과 일부 일정 변경됨

Ⅱ. 출장 내용(일정 순)

①	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특성 및 고립·고독정책 방향의 이해
일 시	12월 2일(화) 17:30~19:00
장 소	일본 도쿄 도쿄돔시티 회의장
참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면담자) 井口 健一郎(이구찌 켄이찌로) 사회보장심의회 위원 ▶ (출장자) 우경미 과장, 정진경 사무관, 배성진 사무관, 박진균 사무관, 김가희 연구위원, 김지민 부연구위원, 오다은 전문연구원, 황재영 센터장

□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전환 방향

-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, 개호(장기요양), 장애, 정신보건 등 대상별·제도별로 분절된 종적 구조로 발전
- 최근에는 제도 간 경계를 완화하고 생활 단위에 맞춰 연계하는 횡적 구조로 전환하려는 단계에 진입, 이러한 전환은 기존 제도의 폐지가 아닌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대응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
- '15년 이후 노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일정 수준 정착되었으며,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논의 진행

□ 중앙-지자체 관계와 사회보장심의회의 역할

- 일본 사회보장심의회는 정책 집행이나 지자체 사업 조정을 수행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논의를 수행하는 자문·심의 기구 성격
- 일본은 지방자치 구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표준적 기준을 제시*하고, 실제 설계와 집행은 지자체가 담당

* 지자체 간 경쟁이나 평가·포상 중심의 관리 방식보다는 전반적 평준화와 자율적 조정이 중시됨

□ 고립·고독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

- 일본에서는 고독을 개인의 주관적 인식 차원으로, 고립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구조적 문제 차원으로 구분하며, 정책 논의의 초점은 개인의 감정 상태보다는 구조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 예방에 있음
- 또한, 최근 고립 문제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공유
- 치매 노인, 정신장애 자녀, 발달장애 손주 등 다문제 가구 사례 증가로 개별 대상 보호에서 벗어나 세대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적 접근 모색
- 일본 사회보장 논의의 전제로 노동 유지가 강조되는데, 해고를 최소화하는 대신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·장년층의 노동시장 잔존을 유도함으로써 중·장년층 고립 문제가 일부 해소

□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운영 방식

-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경로당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규모 지역 거점 공간(노인 살롱, 지역 살롱 등)을 중심으로 주민이 일상적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
- 해당 공간에서는 여가 활동뿐 아니라 청소, 쓰레기 배출 등 일상 생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며 활동은 자원봉사 또는 교통비 수준의 실비 보상 형태로 운영
-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맞벌이 가구 아동, 청·중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
-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정·연계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지와 담당 인력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존재

②	(사)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고독·고립 현황 및 예방 사업
일 시	12월 3일(수) 11:20~12:00(사전 미팅, 시설 라운딩), 13:10~14:40(간담회)
장 소	社会福祉法人 立川市社会福祉協議会(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)
참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면담자) 이은심 교수(쇼와여자대학교), 橋本 正明(하시모토 마사아키) 회장, 大平武彦(오다이라타케히코) 사무국장 외 협의회 사업담당자 ▶ (출장자) 우경미 과장, 정진경 사무관, 배성진 사무관, 박진균 사무관, 김가희 연구위원, 김지민 부연구위원, 오다은 전문연구원, 황재영 센터장

□ 기관 및 지역 개요

- 다치카와시는 도쿄도 중앙부 다마지역에 위치하며, 인구는 약 18만 7천 명, 고령화율은 24.7%
- 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
 - 지역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 시·정·촌 단위에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 체계의 일부로서, 행정과 주민,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지역복지 추진

□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개요

- 다치카와시는 고령화 문제와 고립 예방을 위해 지역 포괄 지원 센터(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)를 핵심 거점으로 운영
- 차량으로 30분 반경, 인구 2만~3만 정도의 중학교 학군을 기준으로 6개의 일상생활 권역으로 나누고, 각 권역에 1개소씩 총 6개소의 센터를 배치
- 생활 권역의 지역 구분은 민생위원 협의회의 지역 구분과 일치시켜 민생위원(국가 지정 봉사자 개념), 사협, 케어매니저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
- 간호보험법에 근거하여 보건사/간호사, 사회복지사, 주임 개호지원 전문위원/치프 케어 매니저의 3개 직종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, 다치카와시 센터에는 평균 5~6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
- 다치카와시는 지역복지 추진을 위해 각 지구에 지역 복지 코디네이터 2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여 커뮤니티 소셜 워크를 수행

- (조금만 도와주는 자원봉사(ちょこっとボランティア))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간단한 문제를 지역 주민이 '작은 도움' 형태로 지원하여 고립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
 - (지역 연결 만들기) 마작, 체조, 식사회, 남성 요리 교실 등 다양한 주제의 만남의 장소를 개설하여 자연스러운 서로 지켜보기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치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포함
 - (집합 주택 관리) 고립사 증가 및 실태 파악의 어려움이 있는 집합 주택(아파트 단지 등)을 대상으로 '지켜보기 간담회'를 실시
 - (전문가 자원봉사 연계) 지역 내 20개소의 방문 간호 센터들의 자발적인 연계 활동으로 시작되어 지역 약국의 약사, 간호사 등 자원봉사 형식으로 집합 주택 등에서 건강 상담회를 진행
- 이러한 과정에서 감시하는 분위기가 아닌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
- 안테나숍 운영
- 다치카와시가 주도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고립 예방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역 내 상점가(상점가)와 연계하여 진행하며, 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상점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노인들이 외출하고 대화할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해 일상적인 건강 및 안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
 - 단순한 물품 판매가 아닌 상점가가 지역 주민의 '안테나' 역할을 하여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
- 지역안심센터
- 지역안심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과 성년후견 관련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 2024년 기준으로 상담 416건으로 성년후견 관련 상담이 2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
□ 일본 사회의 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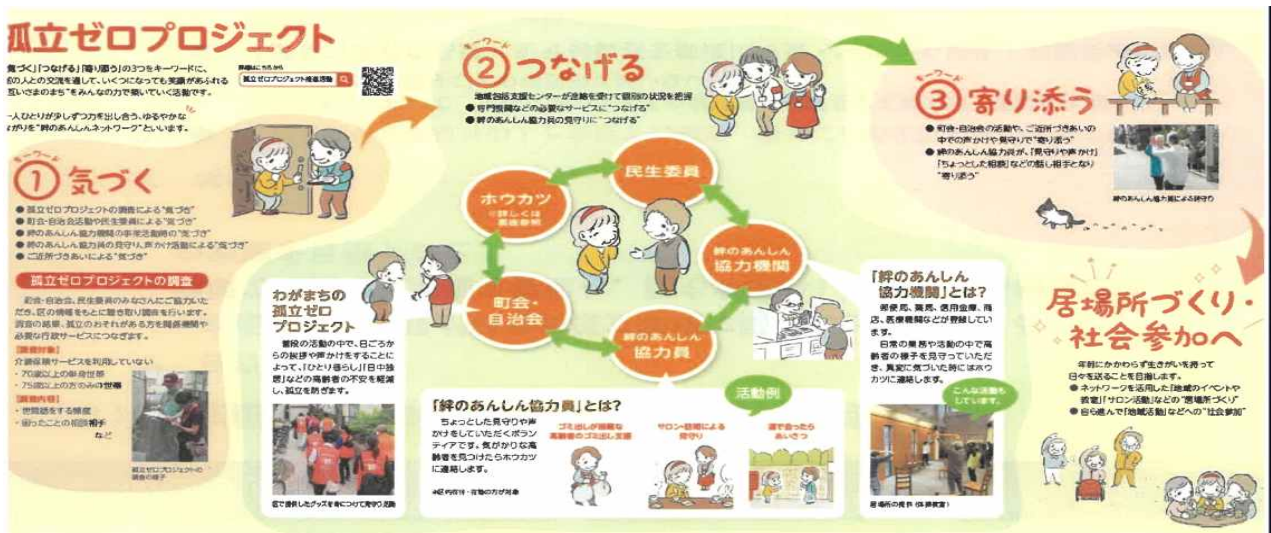
-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입원이나 입소, 재산 관리 및 사회 서비스 이용 계약 등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약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남아, 해결방안 모색
-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민생위원 참여율이 점차 저조하고 사회적인 연대감이 약화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미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

③	도쿄도 아다치구 고립제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
일 시	12월 3일(수) 16:10~17:30
장 소	足立区(아다치구청)
참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면담자) 澤田 健二(사와다겐지) 계장, 橋本 太郎(하시모토타로) 과장(지역의 힘 추진부) ▶ (출장자) 우경미 과장, 정진경 사무관, 배성진 사무관, 박진균 사무관, 김가희 연구위원, 김지민 부연구위원, 오다은 전문연구원, 황재영 센터장

□ 아다치구 개요 및 고립제로 프로젝트 추진 배경

- 도쿄도 아다치구는 인구 약 70만 명(2025년 4월 기준)이며, 고령화율은 24.03%로 도쿄 23구 평균(20.3%) 대비 높은 수준
- 아다치구는 혈연, 지연(커뮤니티), 사연(사회생활 인연)의 단절 심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으며, 특히 '10.7월 구내에서 30년 전 사망한 고령자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 대두
- '지역의 힘 추진부'를 신설('11년)하고, 고립 전담 조직인 '유대 만들기 담당과'를 발족('12년)하였으며, '아다치구 고립 제로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조례'를 제정('13년)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
- 고립의 조례상 정의
 - 아다치구는 조례를 통해 '고립' 상태를 정의
 - * 일상생활에서 세대 이외의 사람과 10분 정도의 대화를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하거나, 혹은 일상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상대가 없는 경우

< 아다치구 고립제로 프로젝트 >



※ 고립 제로 프로젝트 ① 알아차리기(気づく), ② 연결하기(つなげる), ③ 곁에 있어주기(寄り添う)

☐ 고립 제로 프로젝트

- 고립 제로 프로젝트는 ① 알아차리기(氣づく), ② 연결하기(つなげる), ③ 곁에 있어주기(寄り添う)의 3단계 구조
 - ①알아차리기 (조기 발견):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최근에 이웃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경우 등 주변의 이상징후를 눈치채는 경우로 지자체, 민생위원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생활이 걱정되는 사람을 찾아내고, 상담·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
 - ②연결하기 (자원 연계): 지역 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, 필요할 경우 전문 기관과의 지원 체계로 '연결'
 - * 민생위원, 지역포괄지원센터, 동네 자치회, 유대의 안심 협력원, 유대의 안심협력 기관이 연계되어 수행
 - 안심협력원은 동네 이웃의 작은 이상을 조금 신경 써서 지켜보는 사람을 의미
 - 안심협력기관은 상점, 병원, 음식점, 우체국, 금융기관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가게가 협력기관이 됨. 일상 속에서 주민의 변화를 느끼면, 필요한 경우 민생위원이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결

- ③결에 있어주기 (관계 형성): 유대의 안심 협력기관(지역내 가게·병원·사업소 등)이 가벼운 고민·생활 곤란에 다정하게 다가가 돕는 것을 의미
- 거점 만들기, 사회 참여로 누구나 편하게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, 산책·식사·취미 활동 등을 통해 ‘고립되지 않는 마을’을 목표로 함
- 또한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키워서, 누구도 외톨이가 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지향

□ 고립프로젝트 추진 상황

○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(2025년 3월)

- 40,236세대(71.7%)가 고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 고립 위험군(A)은 5,998세대(10.7%)로 나타남

*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70세 이상 단신 세대 및 75세 이상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총 56,074세대(69,043명)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

○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의한 지원(구 내 25곳)

- 동네 회·자치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, 방문 시에 불안이나 고립이 걱정되는 사람에 대해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이 개별 방문하여 상담
-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, 개호보험 서비스나 지역사회의 활동, 또는 유대의 안심 협력원에 의한 안부 확인 등으로 연결

○ 기타활동으로는 우리마을의 고립제로 프로젝트(155개 단체), 유대의 안심협력원(1,316명), 유대의 안심 협력기관(1,229개 단체)의 활동

□ 고립사 현황

- ‘23년 기준 아다치구의 고립사 발생 건수는 474건으로 증가 추세
- 특히 여름철(7월~8월)과 겨울철(12월~1월)에 고립사가 증가하는 경향
 - 최고기온 35℃ 이상인 날의 고립사 평균 발생 수는 약 2.3명으로, 다른 기온대에 비해 높은 수준

- 겨울철에는 일교차(12℃ 이상) 시에는 고립사 위험 1.3배 증가
- 상황별 고립사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취침 중이 가장 많으며 (21.4%), 입욕 중(12.0%)이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음
- 특히 입욕 중은 겨울철을 중심으로 12월~3월에 증가 추세
- 남성의 고립사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며, 특히 남성의 경우 사망 후 발견까지 경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김

□ 남성 고립 대책 및 성과

-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듯, 남성의 고립, 고독사는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구에서는 고립된 고령 남성을 위한 특화된 살롱 운영
- 참가자들이 '생활에 리듬이 생겼다'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의 성과가 있음
- 일부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최신 뉴스와 이야기 내용을 기록하는 '기록장'을 제작하는 등 활동이 자발적인 연계 활동으로 발전

□ 아다치구 고립·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 원칙과 특징

- 그 밖에 유대강화, 사업의 홍보, 열사병 또는 히트쇼크 예방의 계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
- 실태조사 결과 고립 위험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복지 프로그램 정보만 제공할 뿐, 강제로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업을 추진
- 아다치구는 지역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고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도 특성화된 사례로 평가
- 국내·외에서도 현지사례 조사를 위한 방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짐

④	후생노동성 고립사 대응 정책 및 현황
일 시	12월 4일(목) 10:30~12:00
장 소	厚生労働省 (후생노동성)
참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면담자) 미나미타카노리 실장, 菅野 史佳(스가노후미카) 주사(社会・援護局 地域福祉課, 사회원조국 지역복지과) 외 1인 ▶ (출장자) 우경미 과장, 정진경 사무관, 배성진 사무관, 박진균 사무관, 김가희 연구위원, 김지민 부연구위원, 오다은 전문연구원, 황재영 센터장

☐ 일본 사회의 복지 과제와 단독가구 비중 확대

- 총인구는 '20년 약 1억 2,615만 명에서 '70년 약 8,700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'20년 28.6%에서 '70년 약 39%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계
- 단독세대 증가로 단독세대 비율은 '25년 약 40.1%로, '50년에는 약 45%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, 이 중 고령자 단독세대 비율은 '25년 약 14.2%에서 '50년 약 20%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☐ 지역공생사회(地域共生社會) 실현 정책

- 인구 감소, 고령화, 단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기존 사회보장 체계만으로는 생활 전반의 위험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대두
-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재구축하고,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과 기능을 가지며 상호 지지가 순환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「지역공생사회」를 정책 기조로 설정
- **(추진 원칙 및 시스템)** 기존의 수직적(고령자, 아동, 장애인 중심) 복지 시스템을 포괄하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(예방적)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
-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고, 해당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'지역복지 추진 계획'을 의무적으로 수립

- (통합적 거점)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아동, 장애인, 고령자 서비스가 결합된 '다기능 포괄적 거점'을 설치하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 상담과 지원을 제공

□ 단독세대 확대와 주거 불안 문제

- 독거노인 증가와 함께 주거 불안 문제가 고립·고독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독거노인, 장애인, 저소득자 등에 대해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강함
-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, 입주 거부 비율은 고령자 약 70%, 장애인 약 70%, 저소득자 약 50% 수준임.
- 이러한 거부의 주요 배경으로는 임차인 사망 시 주택이 '사고물건'으로 인식되어 이후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
- 한편 전국의 공실 주택 수는 약 900만 호이며, 이 중 임대용 공실은 약 443만 호로 주택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제도적·심리적 장벽이 문제

□ 주거 지원 강화

- 후생노동성은 주거 안정을 고립·고독 예방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, 「주택 세이프티 네트워크법」 개정을 통해 주거 확보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
 - 개정 내용에는 입주 전, 입주 중, 퇴거(사망) 시까지를 포괄하는 연속적인 지원 구조 포함
 - * 법 개정의 시행일은 2025년 4월 1일이며, 일부 조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, 일부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
- 거주 서포트 주택은 거주 지원 법인 등이 집주인과 연계하여, 입주자의 안부 확인과 생활 상태 확인 수행
 - 필요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주택으로 시·구·정 촌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, 주요 대상은 고령자, 장애인, 저소득자, 한부모가구 등

⑤	내각부 고독고립대책 추진 현황 및 정책
일 시	12월 4일(목) 14:00~16:00
장 소	内閣府(내각부)
참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면담자) 堀江 典宏(호리에 노리히로) 참사관, 今橋 知宏(이마하시 토모히로) 주사, 吉田 康祐(요시다 코스케) 실무책임자, 土井 陽介(도이 요스케) 실무책임자(孤独・孤立対策推進室, 고독고립대책추진실) ▶ (출장자) 우경미 과장, 정진경 사무관, 배성진 사무관, 박진균 사무관, 김가희 연구위원, 김지민 부연구위원, 황재영 센터장

☐ 외로움과 고립의 개념 및 사회적 배경

- **(외로움)** 주관적 개념으로, 혼자 있다고 느끼거나 외로움을 인식하는 상태
- **(고립)** 객관적 개념으로, 사회·지역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
- **(주요 배경)** 사회구조 변화*, 코로나19 유행, 대면 소통 감소 등

* 단독가구 증가, 근무 방식 다양화, 인터넷 보급 등으로 인해 가족, 지역사회, 기업 등과의 '연결'이 약화 됨

☐ 주요 현황 통계 (2024년 조사 기준)

- 외로움과 고립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: 대상은 만 16세 이상 20,000명(무작위 표본)으로 '21년부터 매년 실시, '24년 제4차 조사
 - (외로움 경험) 국민의 약 40%가 고독감을 느끼고 있으며, 연령별 특징을 보면 외로움을 '자주' 또는 '항상'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0대(7.4%)와 30대(6.0%)에서 가장 높음
- (아동 자살률) 아동 자살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'24년에는 529명으로 사상 최고치
- '50년까지 전체 가구의 44.3%가 단독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

□ 주요 정책 추진 경과 및 특징

○ 추진 체계 정비 (법적 기반 및 정부 협력 강화)

- ('21년) 외로움 및 고립 대응 담당 장관 임명('21.3월, 내각관방장관 겸임), 외로움 및 고립문제 해결대책을 위해 활동하는 NPO 지원 시작
- ('23.5월) 「고독·고립대책추진법」 제정
- ('24.4월)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추진본부 설치
- (매년 5월) '고독·고립 대책 강화의 달' 운영

○ 외로움 및 고립 방지 조치에 관한 기본 정책

- 외롭거나 고립된 상태에서 쉽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구축
- 생활에 맞춘 원활한 상담 지원 제공
-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 사람들이 '연결'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생성
- 외로움과 고립을 해결하는 NPO 및 기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-민간-NPO 간 협력 강화

○ 정책적 특징

- '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결하는 사회'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
- 공공, 민간, NPO 간의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민관 협력 플랫폼이 설립되었으며, 약 600개 이상의 조직이 회원으로 참여
- 상담 다이얼: "외로움과 고립 상담 다이얼(9999)"을 전화, 이메일, 채팅으로 운영
- 보조금 지원과 우수 사례 개발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여 지역 내 대면 관계 구축을 위한 지역 공공-민간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노력을 의무화
- NPO 등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부금을 마련하고 지원(60억 엔 이상)

□ 최근 발전 방향 및 중점 과제 (중장기 대응)

○ 법 기반 우선 계획 개정 ('25년 5월)

- 총리가 이끄는 진흥본부는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계획 수정을 결정함
-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학생 자살률에 대응하여, 다양한 소속 공간 조성 및 동행 아동 지원체계 구축 등 아동의 외로움 예방 이니셔티브 촉진
-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단독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외로움 및 고립 예방 이니셔티브를 촉진

○ 장관 프로젝트 팀 보고서 핵심 내용('25년 7월)

- (소속감 및 역할 부여) 일상생활에서 '재미있는 것'과 '하고 싶은 일'을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고, '역할', '턴', '의지'를 만드는 것이 중요
- (민간기업 역할) 민간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직원 간,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
- (노동세대 준비) 은퇴 후 외로움과 고립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, 노동 세대의 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 구축 준비가 중요

□ 내각부 및 관계기관 역할

- 내각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「고독·고립대책추진법」에 근거하여 총괄 및 조정을 담당
- 구체적인 대응책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데, 아동 관련 업무는 아동가정청에서, 은둔형 외톨이 등은 후생노동성에서 담당
- '21년 민관협력 플랫폼 사업 시작 당시에는 관련 NPO가 거의 없었으나 사업 시작 후 복지 관련 NPO들이 참여하여 현재 약 600개 단체*가 활동

* 아동 식당, 어르신 은신처 만들기 등의 기관들이 플랫폼에 참여

Ⅲ. 시사점

□ 시사점

- 일본은 사회구조의 변화(1인 가구 증가, 근무방식 다양화, 인터넷 보급 등), 코로나19 등으로 연결이 약화하면서 사회문제인 고독·고립 대응 필요
- '21.2월 내각 관방에 고독·고립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
- '24.4월 고독·고립대책 추진법을 시행하여 고립을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명시하고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법제화
- 일본은 민간 비영리단체(NPO)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내 자발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고립을 방지하는 상향식 방식을 활용

첨부1

일본 고독·고립대책 중점 계획 ※ '25년 주요 개정 내용

고독·고립 대책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중점 계획

2025년 개정 포인트

- 2024년 4월 고독·고립 대책 추진법(2023년 법률 제45호) 시행, 동년 6월 법에 근거한 중점 계획 수립.
- 법 시행 후 1년간 내각부에서 고독·고립 대책 담당 장관을 중심으로 지방공공단체·NPO 등의 지원 및 고독·고립 예방을 목표로 한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. 또한, 유식자 회의 및 관련 협력 플랫폼에서도 논의를 거듭해 왔다.
- 본부 산하 고독·고립 대책 추진 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, 지방자치단체, 지역 협의회, 관계 기관 등 (NPO 등)의 의견을 청취한 후, 중점 계획 개정안을 추진 본부에서 심의하였다.

① **현행 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을 착실히** 추진하면서, ② **현재 직면한 과제·중장기적 과제 등에 적절히** 대응하기 위해 **중점 계획을 개정**(고독·고립 대책 추진 본부 결정)

① 2024년도 계획의 「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」 → 추진 강화 및 지속적 중점 추진.

-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동반 지원 및 NPO 등의 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을 활용하면서, **현장의 노력과 과제를 포함한 수평적 확산 노력을 추진한다.**
- 「연결 서포터」의 추가 보급을 시작으로 고독·고립 상태 예방을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.
- 목표 설정의 우수 사례 수평적 확산 등을 통해, 중점 계획에 정한 **시책의 증거 기반 평가·검증을 통한 추진**을 추진. 등



② 현재 직면한 과제·중장기적 과제 등 → 새롭게 중점 추진 사항에 포함시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대책 추진.

【현재 직면한 과제】

- ✓ **초·중·고등학생 자살자 수 역대 최다**
— 2024년(레이와 6년)은 529명으로 역대 최다.
— 여중·여고생을 살펴보면 여중생·여고생 모두 증가하는 현황

【중장기적 과제】

- ✓ **미래의 1인 가구·1인 고령 가구 증가 전망**
= 고독·고립 위험을 안고 있는 분들도 증가할 전망
— 독신 세대 수가 향후 증가하여 2050년도 44.3% (추정)
- ✓ **고립 사망자 수 추정: 약 2만 2천 명**
표. 「경찰이 처리한 시체 중 자택에서 사망한 1인 가구」 중 생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음이 강하게 추정되는 「사후 8일 이상」 경과한 경우.



- 아동관이나 프리 스페이스, 어린이 급식소 등 **가정도 학교도 아닌 다양한** 거쳐 마련, 아동·청소년의 **고민을 지역에서 받아들이고 동반 지원** 체제 구축, 지역에서 교육이나 복지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「**얼굴이 보이는 관계**」 구축 등, 아동·청소년의 고독·고립 상태 예방을 위한 추진.

- 관계 부처·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현역 세대를 포함한 독신자 등의 고독·고립 상태 예방 및 사회와의 연결을 상실하여 고립사(孤立死)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「**거처·연결망 구축**」 등 **중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고독·고립 상태 예방을 위한 노력** 추진.

이 외에도 취업 빙하기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지원 및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력 추진

등

첨부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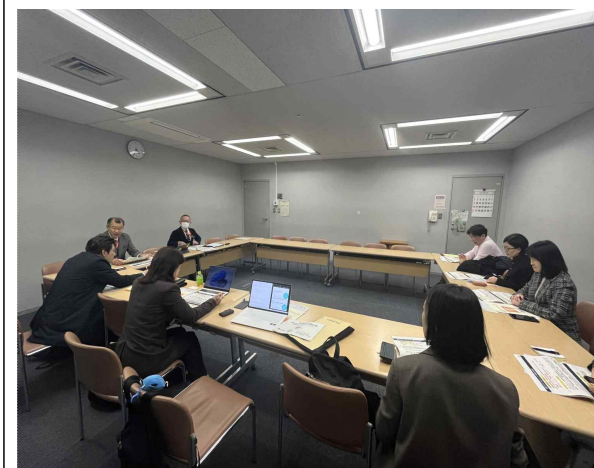
기관 방문 등 회의 참석 사진



① 전문가 면담(井口 健一郎(이구찌 켄이찌로) 사회보장심의회 위원) (일시: 12/2(화) 17:30~19:00)



② (사)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방문(일시: 12/3(수) 11:20~14:40)



③ 도쿄도 아다치구 방문(일시: 12/3(수) 16:10~17:30)



④ 후생노동성 방문(일시: 12/4(목) 10:30~12:00)



⑤ 내각부 방문(일시: 12/4(목) 14:00~16:00)